

KDC6의 불교분야 분류체계 개선(안) 연구

- CLC5, NDC10 비교를 통해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Buddhism in KDC6: By Comparison with CLC5 and NDC10

이 명 규 (Myounggyu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KDC6 불교분야 분류체계 개선(안) |
| II. 이론적 배경 | V. 결 론 |
| III. KDC6, CLC5, NDC10 불교분야 주제 비교 | |

요약: 이 연구는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의 불교(220) 분류체계가 현대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불교 관련 주제를 효과적으로 분류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는 분류표를 개선하는 데 있다.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문헌적 근거에 기초하여 문헌량의 다과로 기준 조정이 필요한 실용적 논리가 있고, 최근 불교관련 자료의 출판 동향은 명상, 심리치료 등 실용적이고 융합적 주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KDC6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 동안의 불교 관련 주제의 출판 동향과 문헌적 근거를 적용하여 분류 배정 비율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KDC6, CLC5, NDC10에서 불교관련 주제에 대한 분류표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적 체계성과 현대적 실용성을 강화하는 분류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개선(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불교 교리 → 경전 → 역사/인물 → 종파/조직 → 수행(실천) → 문화/예술 → 사회'라는 논리적 흐름을 확립한 것이다. 둘째, CLC5와 NDC10의 특징을 수용하여 불교 경전을 경·울·론의 삼장(三藏) 체계로 동위항목하여 세분화하였다. 셋째, 수행(실천)을 현대화하여 '명상', '심리' 등 새로운 주제를 배치하고, 유사 주제의 분산된 항목들을 통합하였다. 넷째, 종파를 사상적, 역사적 흐름에 따라 구성하고, 라마교를 통합하여 논리성을 확보하였다.

주제어: 한국십진분류법, 문헌분류, 분류체계, 문헌적 근거, 불교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ffectively classify modern and subdivided Buddhism-related topics in the 6th ed. of the KDC and to improve classification tables that can improve user accessibility.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study is that there is a practical logic that requires adjustment to the standard of refreshments in the amount of literature based on literary warrant, and the recent trend of publishing Buddhist-related materials is expanding to practical and convergent topics such as meditation and psychotherapy. However, KDC6 saw structural limitations in accepting these changes. Accordingly, the classification assignment ratio was examined by applying the publishing trend and literary warrant of Buddhist-related topics over the past five years in Korea. In addition, classification tables on Buddhism-related topics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KDC6, CLC5, and NDC10.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 classification table improvement (draft) that reinforces academic system and modern practicality was presented. To summarize the contents of the improvement (draft), first, it established the logical flow of 'Buddhism → Buddhist scriptures → history/people → sect/organization → performance (practice) → culture/art → society'. Second, by accepting the characteristics of CLC5 and NDC10, the Buddhist scriptures were subdivided into three-part systems of Scriptures, Precepts, and Doctrinal writings. Third, by modernizing performance (practice), new themes such as 'meditation' and 'psychology' were placed, and distributed items of similar topics were integrated. Fourth, the sect was organized according to ideological and historical trends, and Lamaism was integrated to secure logic.

KEYWORDS: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Library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System, Literary Warrant, Buddhism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gyulee@jnu.ac.kr / ISNI 0000 0000 3622 0380)

- 논문접수: 2025년 11월 24일 • 최초심사: 2025년 12월 5일 • 게재확정: 2025년 12월 10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6(4), 21-44, 2025. <http://dx.doi.org/10.16981/kliss.56.4.202512.21>

* Copyright © 2025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1. 연구 목적과 방법

문헌분류는 지식분류에 기반하여야 한다. 그것은 모든 문헌분류체계는 지식분류체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논리로 보인다. 그렇지만 문헌분류는 실용성에 무게를 둔 반면에 지식분류는 논리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남태우, 2015, i). 이러한 논리적 기반에 실용성을 가미한 조화의 부족함은 사회가 발전하여도 여전히 발생한다.

문헌분류체계는 정보매체가 담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주제에 따라 조직화하기 위한 도구이다. 범용의 문헌분류체계는 모든 주제영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조직화된 체계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개별영역에서 정리한 해당 분야의 지식체계를 참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각 분야에서 구축한 지식체계를 무비판적으로 문헌분류체계로 종합하는 것은 아니며 수집된 자료들이 담고 있는 지식의 세계를 질서 있게 담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검토를 수행한다(김성원, 2021, 26).

여기서 질서를 바로 잡는 일이 분류의 제1차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분류의 진화에서 자연적 순서가 제1차적 분류이며, 여기에 기반하여 학문분류는 2차적으로 수행된다. 그리고 3차적인 분류가 실용성을 강조한 문헌분류의 단계로 발전한다(남태우, 2015, i). 각 주제 분야의 이론적 논리성과 문헌정보학 영역에서의 실용적 검토가 상충되는 경우 문헌정보학 입장에서는 언제나 실용성에 우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헌분류체계의 개정은 학문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수시로 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2013, xxxv). ICT를 통한 4차 산업혁명, AI의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있고, 전통적인 인간관과 세계관이 흔들리면서 종교계에도 새로운 변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불교 관련 문헌의 출판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출판 흐름은 불교 관련 실용서와 수행서의 발행이 늘고, 학술서도 전문적이고 세분화되어 발행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불교 관련 자료를 분류할 때,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에서 불교(220)의 강목 적용에 전개가 부족하거나 일부 항목의 지나친 포괄성으로 분류체계의 한계를 보인다. 이에 불교 주제에 대한 문헌분류체계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 방법은 이론적 배경인 문헌 연구로 불교에 관한 이론과 범주, 그리고 문헌분류체계의 실용적 배경인 문헌적 근거를 살펴보고, 한국, 중국, 일본의 문헌분류체계에서 불교분야의 분류체계인 요목과 세목, 세분을 비교 분석하며, 개선(안)의 현실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근 5년간

불교 관련 자료(도서)에 대해 불교분야에 대한 분류체계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3개 나라의 문헌분류체계, 즉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이하 KDC6이라 칭함), 『中国图书馆分类法』第5版(이하 CLC5), 『日本十進分類法』新訂10版(이하 NDC10) 등에서 불교분야의 분류체계와 불교 관련 항목(KDC6 220, CLC5 B94, NDC10 180)을 구조, 내용, 특성 등으로 비교 분석하여, 개선(안)의 필요성으로 논리적 기준, 항목 전개, 이용자 접근 강화 등을 확보한다. 그리고 KDC6의 불교분야에 대한 분류체계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013년 KDC6의 발행 이후 KDC6 개선(안)에 대한 연구가 있다. KDC6의 학문(지식) 분야별 개선(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KDC6 개선(안) 관련 선행연구

관련 형식/주제		연구자	논문제목	발표 연도	발표 유형
영역	주제				
이론	문헌적 근거	김성원	문헌적 근거에 기반한 한국십진분류법 활용현황에 대한 연구	2021	학술 논문
		전창호	문헌적 근거에 기초한 한국십진분류법 전개 개선 방안 연구	2015	학위 논문
학문 분류	문헌정보학	온혜성	한국십진분류법의 문헌정보학 분야 분류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4	학술 논문
	기록관리학	박수현 이명규	한국십진분류법 기록관리학 분야 분류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2016	
	체육학	이희진 김정현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체육학 분야의 분류체계 개선방안	2013	
	관광학	김정현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관광학분야의 분류체계 수정전개방안	2014	
	사회복지학	김정현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사회복지학 분야의 분류체계 수정전개방안	2017	
	건축학	김송이 정연경	KDC 제6판 건축학 분야의 분류체계 개선방안	2014	
	국방·군사학	한경신	한국십진분류법 국방·군사학(390)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2014	
	디지털	정옥경	한국십진분류법의 디지털 관련 항목명 확장전개에 관한 연구	2014	
	어린이	오영옥 이미화	어린이도서 분류를 위한 KDC 6판 개선 및 적용에 관한 연구	2019	
	문학	조혜전 정연경	중학생의 소설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소설분야 분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8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KDC 관련 연구는 주로 KDC 본표의 일부인 특정 학문 분야의 개선(안)에 대한 것이다.

KDC6의 본표에 해당하는 학문(지식) 분야의 주제를 대상으로 그 개선(안)을 제시하였는데,

문헌정보학 분야는 온혜성(2014), 기록관리학 분야는 박수현과 이명규(2016), 체육학 분야는 이희진과 김정현(2013), 관광학과 사회복지학 분야는 김정현(2014; 2017), 건축학 분야는 김송이와 정연경(2014), 군사·국방학 분야는 한경신(2014), 디지털 분야의 항목 연구는 정옥경(2014), 어린이도서 분류에 연구는 오영옥과 이미화(2019) 그리고 문학 분야는 조혜전과 정연경(2018) 등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이론적 배경인 문헌적 근거를 활용하여 KDC 전개 방안을 제시한 연구로는 전창호(2015)의 연구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문헌적 근거’에 기초한 KDC 전개 개선에 대한 연구는 실제로 문헌분류 체계 구성의 이론체계로 적용되는 이론이다. 이것은 여전히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을 반영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KDC의 특정 분야 개정(안)을 제시한 여러 연구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에 이러한 문헌적 근거 이론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도 KDC6 종교(200)류의 불교(220) 강목의 개선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문헌적 근거와 해당 분야의 학문(지식)분류체계를 살펴보고, 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헌적 근거(literary warrant)

실용 학문인 문헌정보학은 사회 현장과 밀접한 학문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된 이론을 현장 실무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 특히 분류는 사물이나 현상, 개념 등을 유사한 것은 모으고 상이한 것은 구분하여 체계화하는 것으로(한국도서관협회, 2010, 166), 모든 주제 분야를 포괄하는 범용 분류체계의 구성과정에서는 각 주제(학문)의 영역에서 개발된 이론체계와 분류체계를 원용하여 문헌분류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각 주제영역에서 개발된 이론체계와 분류체계를 그대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며 도서관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실용성에 기반한 수정과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수정과 조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대표적인 것이 문헌적 근거이다(김성원, 2021, 30).

문헌적 근거는 ‘특정 주제에 관련된 문헌의 양 혹은 특정 분야에서 표현되고 구체화된 지식의 양’(한국도서관협회, 2010, 136)으로 정의된다. 도서관협회는 관련 개념을 대표하는 표목으로 문헌적 근거를 채택하였으나 관련 연구자들간에는 ‘문헌량 근거’ 혹은 ‘문헌적 타당성’이라는 용어로 통용되기도 한다. 문헌적 영역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채용될 수 있는 ‘문헌량의 다과에 기준한 근거’(김성원, 2021, 30)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헌적 근거를 분류영역에 적용하면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론적 고려만이 아닌 분류작업의 대상이 되는 자원(양)에 기반한 분류체계’로 정의된다.

분류이론에서 문헌적 근거는 ‘개념단계(idea plane)’의 ‘동위항목 배열기준(canons for array)’에서 ‘유용한 배열원리(canon of helpful sequence)’ 가운데 ‘문헌적 근거의 원리(literary warrant sequence)’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위항목의 배열을 결정하는 원리의 하나로서 해당 주제에 관한 문헌량의 다과를 기준으로 항목 배열의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원칙이다(Kumar, 1981, 115). 또한 ‘용어의 단계(canons for verbal plane)’의 하위 원칙 가운데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용어는 해당 주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행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Kumar, 1981, 125)는 규범인 ‘현재성 규범/통용규범(canon of currency)’도 문헌적 근거와 관련 있는 항목으로 볼 수 있다. 용어의 선정과정에서 현재 얼마나 많이 쓰이고 통용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용어를 선택해야 한다는 규범이기 때문이다.

문헌적 근거의 중요성으로, 문헌을 대상으로 고안된 범용의 문헌분류체계는 전체 주제 분야를 대상으로 활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모든 주제분야를 포괄해야 한다. 이 문헌분류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자는 개별 주제분야의 전문가의 참여 및 협업을 통해 해당 주제분야에서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는 분류체계를 반영하게 된다. 그러나 개별 주제분야의 분류체계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주제분야와의 조화나 세분정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조정 작업이 수행된다. 이러한 조정 과정을 거쳐야만 전 주제 분야가 조화를 이룬 범용의 분류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검토와 조정의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완성된 문헌분류체계의 실용성이며 실용성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문헌적 근거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틀은 해당 주제 영역에서 채용하고 있는 논리적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문헌적 근거를 적용하여 조화로운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주제분야의 이론적 논리성과 문헌적 근거에 기반한 실용성은 분류체계 구축에 필요한 두 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문헌분류체계의 구축 과정에서 주제 분야의 이론체계로부터는 논리성을 그리고 도서관 현장의 장서로부터는 문헌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이상적이고 실용적인 분류체계를 얻을 수 있다(김성원, 2021, 30-32).

2. 불교의 지식체계

불교에서는 깨달은 자를 ‘부처’라 하고, 부처의 가르침을 ‘불교’라 한다. 부처에 대한 연구를 ‘불학’이라 하고, 부처의 가르침에 대한 연구를 ‘불교학’, 즉 ‘불교 연구’라고 한다. 다시 말해, ‘불교’가 부처의 가르침이라면, ‘불교학’은 부처의 가르침에 대한 학문적 탐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불학’이 부처에 대한 연구라면, ‘불교 연구’는 부처의 가르침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고영섭, 2016b, v). 이러한 개념 모두를 여기서는 종합적으로 ‘불교’라고 조작 정의하고자 한다.

불교는 불, 법, 승의 삼보와 경, 율, 논, 의 삼장과 계, 정, 혜의 삼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보는 경배의 대상이고 삼장은 교리의 내용이며 삼학은 수행의 내용이다(고영섭, 2016a, vi).

불교의 체계는 크게 ‘삼보(三寶)’라는 기본 구조 위에 ‘교리(敎理)’라는 사상적 토대를 갖추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크게 세 단계로 발전해 왔다. 삼보(三寶)는 불보, 법보, 승보를 말하며, 불교 공동체와 신앙의 핵심 구조이다. 불보(佛寶)는 ‘석가모니 부처’를 의미하며, 법보(法寶)는 부처가 깨닫고 설파한 ‘가르침(교리)’ 자체를 의미하며 경전 전체를 포괄한다. 그리고 승보(僧寶)는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수행하는 ‘공동체’, 즉 승단을 의미한다. 이들은 가르침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역할을 한다. 불교의 핵심 교리는 ‘사성제(四聖諦)’, ‘팔정도(八正道)’, ‘연기법(緣起法)’ 등이다.

삼장(三藏)은 붓다의 가르침인 ‘법(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집대성한 경전 전체(대장경)를 의미한다. 이 삼장은 경, 율, 론으로 구분하는데, 경장(經藏)은 붓다가 직접 설법한 교리를 모아 놓은 것(예, 아함경, 법화경 등)이며, 율장(律藏)은 승단(僧)이 지켜야 할 계율과 규칙을 모아 놓은 것이다. 논장(論藏)은 붓다의 가르침(經)을 후대의 제자들이 연구하고 해석하여 체계화한 철학적, 교리적 논서들이다.

삼학(三學)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실천하고 배워야 하는 세 가지 수행 방법을 말하며, 여기에는 계, 정, 혜로 구분한다. 계(戒)는 윤리적 실천(도덕), 즉, 악한 행위를 막고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것(예, 오계, 십계)으로 모든 수행의 기초를 말한다. 정(定)은 정신 집중(명상)으로 산란한 마음을 한곳에 모아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삼매)를 이루는 수행이다. 혜(慧)는 지혜로서, ‘계’를 바탕으로 ‘정’을 닦아, 사물의 실상과 진리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지혜)을 얻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인 깨달음(열반)에 이른다.

이와 같이, 법보는 신앙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가르침이고, 삼장은 이론으로 가르침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교과서이고, 삼학은 실천으로 가르침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 3가지 개념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불교의 전체 체계를 이룬다.

한편, 불교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불교는 창시 이후 시대와 지역에 따라 교리와 수행법이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근본불교로 불리는 초기의 불교는 기원전 6~5세기경, ‘고타마 싯다르타’가 35세에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어 가르침을 펴면서 시작되었다. 초기의 가르침은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 무아(無我) 등 핵심 교리에 집중되었다. 부처의 입멸(入滅) 후, 제자들은 가르침(法)과 계율(律)의 해석을 두고 논쟁을 벌였고, 그 결과 불교 내부에서 다양한 분파가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분파로는 보수적인 ‘상좌부’와 진보적인 ‘대중부’가 있으며, 이후 여러 개의 다양한 학파(부파)로 분화되었

다. 이러한 분열은 가르침의 이해 방식과 실천법의 다양화로 이어진 것이다. 기원 후 1세기 전후로 인도 북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불교 흐름으로 대승불교가 대동하여 보편적 자비와 구제를 강조한 불교의 이상과 목적, 수행 방향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불교는 인도라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 여러 지역의 문화권으로 전파되었다. 이를 크게 3개로 구분할 수 있다. 남방(상좌부) 불교, 북방(대승) 불교, 티베트 불교 등이다. 이 과정에서 불교는 지역의 언어와 철학, 신앙과 융합하며 다양한 형태로 정착하여 발전되었다.

3. 불교 관련 문헌의 출판 동향

최근 5년간의 불교 관련 문헌 발행 동향의 큰 특징은 전통교리 중심에서 현대적 실천 및 응용 중심으로의 확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대중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불교를 종교적 교리보다는 ‘심리적 치유’와 ‘삶의 철학’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다.

학술서(연구서)의 경우는 전통불교 연구로 중관(中觀), 유식(唯識), 화엄(華嚴) 등 핵심 교리에 대한 연구와 주석서, 원전 번역(특히 티베트, 산스크리트어 원전)이 꾸준히 출간되고 있고,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응용 불교 학술서로 ‘불교 상담심리’, ‘불교 사회복지’, ‘불교와 서양철학 비교’, ‘불교와 뇌과학’ 등 타 학문과의 융합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고전 연구를 넘어 실용 학문으로 꾸준히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교양서로서 실용적인 주제로 ‘명상’, ‘마음 챙김(mindfulness)’, ‘행복론’ 등의 도서가 많이 발행되고 있다.

스님들이나 불교학자들이 불교 철학을 바탕으로 ‘삶의 태도’, ‘죽음’, ‘관계’ 등을 조언하는 에세이가 출판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철학’과 ‘종교(수행)’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잡지(학술지)의 경우는 전문 학술지는 물론, ‘월간 불광’, ‘월간 해인’, ‘불교신문’ 등 교계 언론 및 대중 잡지에서도 실천적, 문화적 주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불교사는 한국사의 핵심 부분으로, 학술적, 대중적 수요가 모두 존재한다. 학술서로는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는 물론, 특정 사찰의 역사(사찰사)나 인물(고승)에 대한 미시적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미술사(문화재)도 불상, 불화, 탑 등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서가 지속적으로 출간되며, 이는 ‘불교 미술사’라는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불교 관련 도서 발행의 동향은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학술서의 발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대 사회생활에 필요한 교양서의 발행도 확대되고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불교 관련 도서를 대상으로 KDC6으로 분류된 현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최근 5년간 불교 관련 문헌 발행(KDC6적용) 동향

구분	'20	'21	'22	'23	'24	계	구분	'20	'21	'22	'23	'24	계
220	92	14	21	9	15	151	224.4				1	2	3
220.1	10	19	27	32	11	99	224.8	34	38	27	34	26	159
220.3		1	1	3	7	12	225.1	3					3
220.4	46	53	39	52	42	232	225.2	6	4	6	9	9	34
220.5					1	1	225.4		1				1
220.6			7			7	225.5					2	2
220.8	3	6	5	1		15	225.7	1	2	7	1	5	16
220.9	23	19	30	21	22	115	225.8	10	7	14	8	13	52
221	7	8	7	1	4	27	226			1			1
221.1				1	1	2	226.2	1					1
221.2	2	5	7	6	5	25	226.3				1		1
221.4	5	2		5	4	16	226.4			2	1		3
221.6	2	1	2	2		7	226.9	9	30	17	23	13	92
221.9	1	3	2	1	1	8	227	1	2			1	4
222		1	2			3	227.1	5	1			1	7
222.2	2	2	3	2	5	14	227.2					1	1
222.4		1			2	3	227.5	8	9	7	9	4	37
222.8			1			1	227.6	1		1		1	3
223	14	15	9	6	15	59	227.7	1					1
223.1		1	1	5	2	9	227.8			1			1
223.2	1				1	2	228				1		1
223.4	2	1	3	2	1	9	228.3					1	1
223.5	63	94	106	111	115	489	228.4	1		1	3	2	7
223.6	1		1			2	228.5		1	1			2
223.7	4	3	4	5	4	20	228.6		4	1		2	7
223.8	2	14	8	2	5	31	228.7	18	50	27	28	16	139
224	2	2	1	1		6	228.8	5	6	7	4	5	27
224.1	1	3	3	4	3	14	228.9	20	33	18	41	28	140
224.2	12	18	21	25	26	102	229	6	5	20	9	7	47
224.3	33	46	30	28	31	168	소계b	130	193	158	173	139	793
소계a	328	332	341	329	319	1,649	계a+b	458	525	500	502	458	2,442

〈표 2〉는 2025년 11월,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 링크드오픈데이터(LOD)를 통해서 수집한 자료이다. 최근 5년 KDC6의 종교류 불교(220) 강목의 도서는 모두 2,442종이 발행되었다. 이를 불교(220) 강목, 세목별로 살펴보면, 220(불교)이 장서의 25.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23(경전)이 25.4%와 224(신앙록, 신앙생활)가 18.5%, 228(종파)이 13.3%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220, 223, 224, 228의 세목이 전체 장서의 83.1%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28(종파)은 모두 324종의 도서가 있다. 이 중에서 228.7(선종) 세분에 139종(42.9%)과 228.9(기타 종파) 세분에 140종(43.2%)이 있다. 이는 228 세목에서 228.7과 228.9세분에 무려 86.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문헌적 근거에 의하면, 이는 KDC6의 불교(220) 강목의 분류표 구성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김성원(2021, 37-38)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KDC 종교류의 분류항목 활용 현황을 개괄적

으로 보면 설치된 분류항목은 612개의 항목이며, 이 가운데 정보자원이 배정된 항목은 18개, 미활용항목은 194개로 설치된 항목의 활용비율은 68.3%인 것으로 파악된다. 상대적으로 항목의 활용비율이 높은 주류로서 강항목에 개별 종교를 배정하고 목항목은 종교공통구분을 적용하는 조합식 분류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종교류에서 설치된 분류항목 가운데 정보자원이 분류되지 않아 활용되지 않은 항목은 194개 항목으로 31.7%에 해당한다. 이들 항목 가운데 동위항목들도 미활용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선별한 미활용 분류항목은 <표 3>과 같다.

<표 3> 한국십진분류법 종교류 불교강 미활용 항목*

분류기호	표목	미활용 분류항목	검토 결과
223.52	본연부(本緣部)	1, 2, 3, 4, 9	5개 동위항목 모두 미활용
223.59	밀교부(密敎部)	1, 2, 3, 4, 5, 6, 7, 9	8개 동위항목 모두 미활용
223.81	석경론부(釋經論部)	1, 2, 3, 4, 5, 6, 7, 9	8개 동위항목 모두 미활용
223.86	유가부(瑜伽部)	1, 3, 4, 5, 9	6개 동위항목 중 5개 항목 미활용
223.87	논집부(論集部)	1, 2, 3, 4, 5, 6, 7, 8, 9	9개 동위항목 모두 미활용
225.2	설법	1, 5, 6, 9	4개 동위항목 모두 미활용
225.73	신도 교육	1, 2, 3, 4, 5, 7	6개 동위항목 모두 미활용

* 김성원(2021, 38)의 글에서 <표 3> 재인용

이상의 미활용 분류항목을 살펴보면 주로 불교 경전의 세목(細目) 아래 항목이 미활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표목과 관련한 저작이 많지 않다면 전반적으로 항목을 축소하고 필요시 포함주로 열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김성원, 2021, 38). 그러나 실제 분류에서 KDC6의 225(포교, 교육 등) 세목(細目)의 225.2(설법)에 세분 배정하기보다는 주로 224.2(법어, 어록) 세분에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표 2>에서 224.2는 102종의 현황을 볼 수 있다. 이는 특정 주제 수준에 따라 여러 곳에 분류표를 배정하는 것에서 오는 현상일 수 있다.

Ⅲ. KDC6, CLC5, NDC10 불교분야 주제 비교

현행의 우리나라 KDC6, 중국 CLC5, 일본 NDC10 등 각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헌분류체계에 나타난 불교 관련 분야의 분류체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KDC6 불교(220)

2013년 발행된 KDC6은 분류기호의 합성방식을 도입하고 분류항목에 다양한 주기를 기술하고, 보조표는 6개로 구성하였다. 상관색인을 대폭 수정하고 해설서를 본표와 함께 발행하였다.

KDC6에 규정된 불교 관련 주제는 주류(main class) 종교(200)에 속하며, 중분류(division)로 불교(220)강목에 분류된다(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2013, 175-190).

KDC6의 불교 분류기준은 불교라는 종교를 구성하는 주요 주제(topic)를 기준으로 자료를 분류한다. 불교 관련 분류기준의 핵심 요목은 불교의 사상, 교리, 인물, 경전, 신앙, 조직, 종파 등의 주제이며, 이를 강목(綱目)과 세목(細目), 세분(細分(소수점 이하 분류))으로 하여 분류체계를 갖추고 있다. KDC6에 불교(220) 강목의 하위인 불교 관련 분야(221~229) 세목, 세분의 분류표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KDC6 불교(220)강목 분류표

분류표	비고
220 불교(佛敎) Buddhism 남방계 불교를 포함한다. .1 불교 철학 및 사상 .9 불교사	불교 사상, 불교 철학, 우주관, 윤리 등에 관한 자료를 분류한다.
221 불교 교리 Buddhist doctrine .1 소승불교 원시불교를 포함한다. .2 대승불교	불교의 근본 교리에 관한 자료를 분류한다.
222 부처, 보살, 불제자 Budda [전 제불, 보살, 불제자] .1 이상불 .2 석가불(석가모니) 및 그 생애	석가모니, 아미타불 등 여러 부처, 관음보살 등 보살, 그리고 주요 제자들(나한)에 관한 자료를 다룬다.
223 경전(불전, 불경, 대장경) Buddhist scriptures 경, 율, 논 삼장의 종합저작을 포함한다. .1 남방계경전 (.11 경장, .12 율장, .13 논장, .14 장 외) .4 북방계경전	불경, 불전, 대장경 등 불교의 핵심 문헌을 포괄한다. 경·율·론을 '경전'의 하위 주제로 묶는다.
224 종교신앙, 신앙록, 신앙생활 Diverse memoirs and religious life 불교윤리 및 종교적 생활에 관한 포괄적인 저작을 포함한다. .3 신앙록, 명상록 .8 개인신앙생활 .9 가정신앙생활	신앙, 명상, 참선, 수행 방법, 간증, 수행 생활에 관한 자료가 여기에 속한다.
225 포교, 교육, 교화활동 Missionary activities 불교전파를 위한 제반 활동을 포함한다. .1 설법학 .4 포교사 .5 불교보급활동 .7 불교교육	불교의 전파(포교), 불교 학교, 불교 교육, 사회 교화 활동에 관한 자료이다.
226 사원론 Temple .1 사찰과 정부 .2 사찰 관리 및 행정 .3 사찰 재정, 사령 .8 강원, 선원, 율원, 염불원 .9 사지, 사적	사찰(절) 역사, 건축, 운영, 그리고 승려조직(승가), 계율, 승려의 생활에 관한 자료를 분류한다.
227 법회, 의식, 행사(의궤(儀軌)) Buddhist ritual and ceremonies .1 행사작법 일반, 법식 일반 .5 의식 .7 찬불가	예불, 재(齋), 법회, 불교 명절(부처님오신날 등)과 같은 의례 및 행사에 관한 자료이다.
228 종파 Buddhist sects 각 종파 및 각 사찰을 포함한다. .1 계율종 .4 화엄종 .7 선종 .8 진언종, 밀교 .9 기타 종파	선종, 교종, 정토종, 천태종, 화엄종, 조계종 등 불교의 여러 종파의 역사, 교리, 특징을 다룬다.
229 라마교(喇嘛敎)	장전불교, 티베트불교, 달라이라마, 홍교, 백교 등을 포함한다.

분석하면, KDC6의 불교 분류기준은 전통적인 불경 중심의 ‘삼장’ 체계가 아니라, ‘교리 → 인물 → 경전 → 신앙/수행 → 포교 → 조직/사찰 → 의례 → 종파’와 같이 불학과 불교학의 학문 체계와 종교 현상을 반영한 주제별 분류 방식을 따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현대 사회의 불교 관련 문헌의 출판 동향에 비춰 보았을 때 나타나는 한계를 경전, 수행, 종파 항목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23(경전)에서 경전 항목의 포괄성에 문제가 있다. 2장의 이론에서 살펴보았듯이 불교의 삼장(三藏)은 붓다의 설법 교리인 경장(經藏), 승단 계율과 규칙을 모은 율장(律藏), 경장을 해석 정리한 논서인 논장(論藏) 등, 경·율·론의 삼장 체계가 계층적으로 모두 반영되어 학문적인 문헌 분류표의 세목 전개가 길어지는 한계가 있다. 둘째, 220(불교)의 ‘율리’와 224(종교신앙, 신앙록, 신앙생활)의 ‘종교신앙’과 227(법회, 의식, 행사)의 ‘의식’의 개념이 모호하거나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수행, 명상, 참선 등 현대적 수요가 높은 주제의 분류 위치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셋째, 229(라마교)의 존재로 국가적, 국제적인 불교 종파를 수용할 수 있지만, 분류체계가 대체로 한국 불교 중심이다. 국제적(동남아, 티베트 등)인 불교 종파의 수용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주제에 대한 수용의 어려움이 있어, 불교 심리학, 불교 상담, 마음챙김(Mindfulness), 디지털 불교 등 신규 융합 주제에 대한 분류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문헌적 근거에 의하면 불교 관련 분야의 문헌량 다과에 따라 분류체계의 주제 요목이 세목과 세분으로 적절하게 배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CLC5 불교(B94)

2010년 발행된 중국의 국가표준 분류표인 CLC5는 구조적으로 열거식의 분류체계를 지닌 비십진식의 분류법으로서 알파벳 대문자를 주류 기호로 사용한다. CLC5는 본표와 본표 내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보조표 그리고 8개의 일반보조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색인은 출판되지 않았으나 별도의 중국분류주제사표가 있어 색인의 구실을 하고 있다(이창수, 2016, 2).

CLC5의 구성체계는 주류기호에 알파벳 대문자 26개 중 22개를 적용하였다. 불교 관련 자료는 주류 ‘B(철학, 종교)’에 속하며, 강목에 ‘B9(종교(宗教))’이고, 구체적으로 불교는 ‘B94(불교)’ 항목에 분류된다(國家圖書館 中国图书馆分类法编辑委员会, 2010, 20).

불교 주제 분류의 핵심 기준은 불교 경전의 전통적인 삼장(三藏) 체계이다. 즉, 자료를 1차적으로 삼장의 경(經), 율(律), 론(論)으로 구분한 뒤, 이를 다시 종파별, 학파별로 세분화한다.

CLC5의 불교(B94)강목의 주요 분류기준으로 한 불교 관련 자료의 핵심 분류기준(요목)은 불교의 구성 요소인 삼장(三藏)과 삼학(三學)이며, 종파, 철학, 역사, 문화 등이다. 이를 논리적 순서에 따라 세분화하였다. 불교 경전을 총망라한 자료(전집(대장경))를 가장 먼저 분류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CLC5 불교(B94)강목 분류표

분류표	비고
B94 佛教(불교)	모든 경, 율, 소의 저작은 여기 분류한다.
B941 大藏經(대장경, Tripitaka)	
B942 經及經疏(경 및 경소, 경전과 그에 대한 주석서)	경장(Sutra): 부처의 설법을 담은 경전을 분류한다.
B942.1 大乘(대승, 마하야나)	대승/소승/밀교 등 종파별로 세분화
B942.2 小乘(소승, 히나야나)	
B942.3 秘密部(밀교)	
B943 律及律疏(율 및 율소, 계율과 그에 대한 주석서)	율장(Vinaya): 승단의 계율과 규칙을 다룬 문헌을 분류한다.
B943.1 大乘律(대승률)	계율이 속한 부파(部派)별로 세분화
B943.2 有部律(유부률, 설일체유부)	
B943.3 四分律(사분률, 戒本(계본))	
B943.4 五分律(오분률)	
B944 論及論疏(논 및 논소, 논서와 그에 대한 주석서)	논장(Abhidharma): 경과 율을 해석하고 체계화한 논서를 분류한다.
B944.1 大乘宗經論(대승종경론)	대승/소승 및 주요 논서별로 세분화
B944.4 小乘論(소승론)	
B945 布教(포교), 儀注(의주) 行儀(행의), 儀軌(의궤), 發願(발원), 諷誦(풍송), 懺悔(참회), 課儀(과의) 등이 해당됨. 예: 二課合解(이과합해), 禪門口誦(선문일송) 등.	불사(佛事)의 법식(法式)
B946 宗派(종파) 기준: 중국 불교의 주요 종파(천태종, 화엄종, 정토종, 선종 등)와 티베트 불교(라마교) 등 세분화	종파(Sects): 특정 종파의 교리, 역사, 인물 등에 관한 자료를 분류한다.
B946.1 天台宗(천태종)(日蓮宗(일련종), 法華宗(법화종))	
B946.2 三論宗(삼론종)(法性宗(법성종))	
B946.3 法相宗(법상종)	
B946.5 禪宗(선종)(佛心宗(불심종))	
B946.6 密宗(밀종)(秘宗教(비종교), 眞言乘, 金剛乘) 喇嘛教(라마교), 티벳불교가 여기에 해당됨	
B946.7 律宗(율종)(南山律宗(남산율종))	
B946.8 淨土宗(정토종)(蓮宗(연종))	
B947 佛教組織及寺院(불교조직 및 사원) 현대불교단체(學校(학교), 福祉機關(복지기관) 등), 組織機構(조직기구), 寺廟(사묘(사찰)) 등이 해당됨	불교단체를 분류한다.
B948 對佛教的分析和研究(불교에 대한 분석과 연구)	기타 주제: 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 주제 분류한다.
B949 佛教史(불교사)	
B949.9 傳記(전기)	

분석하면, CLC5의 불교 분류체계는 첫째, 전통적인 불교인 경·율·론의 삼장(三藏) 체계를 기본 골격으로 삼아 자료 내용과 형태에 따라 B942(경과 경소), B943(율과 율소), B944(논과 논소)로 분류하고 삼장의 체제가 동위항목에서 순차적으로 열거되었다. 둘째, 불교 종파는 B946에 배치하여 불교의 주요 종파를 구분하였고, 그 하위 항목에서 종파(천태종/선종 등)별로 세분화하였고, 동시에 라마교도 동위항목에 분류하였다. 셋째, 불교사를 B949에 배치하였다. 특히 불교사를 독자적으로 강목에 배치하여 삼장과 동위항목에 배열하였다. 또한 인물에 해당하는 전기를 역사의 하위로 두어 분리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B94의 분류체계는 대체로 고전적인 전통불교 중심이다.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교 관련 자료의 발행은 현실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불교 관련 새로운 주제에 대한 자료의 발행도 제한적이고, 이를 분류체계에 수용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3. NDC10 불교(180)

2014년 발행된 일본의 대표적인 표준분류표인 NDC10은 십진식 분류표로서, 본표와 보조표편과 상관색인과 사용법 등이 담긴 2권으로 발행되었다.

NDC10에서 불교 관련 자료는 KDC6가 주류 200(종교)에 배치되는 것과 달리, 주류 100(철학)에 포함되어 있다. 불교에 배정된 고유 분류기호는 180(仏教, 불교) 강목이다(日本図書館協會分類委員會 改訂, 2014, 109-112). 이는 종교를 철학의 하위 범주로 간주하는 NDC의 학문 분류체계를 보여준다.

NDC10의 불교(180) 강목의 분류기준은 주제(topic) 중심의 분류체계를 따른다. 하지만 세부 항목에서 일본 불교의 특수성이 매우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불교 관련 분류기준의 요목은 불교의 교리, 인물, 경전, 신앙, 종파 조직 등의 주제이며, 이를 세목과 세분으로 하여 분류체계를 갖추고 있다. NDC10에 불교(180) 강목의 하위인 불교 관련 분야(181~189) 세목 또는 세분의 분류표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NDC10 불교(180)강목 분류표

분류표	비고
180 佛教(불교) Buddhism	NDC 공통세분표 적용
181 佛教教理(불교교리), 佛教哲學(불교철학) Buddhist doctrines	불교의 사상, 교의, 철학, 윤리 등 교리에 관한 자료를 분류한다.
182 佛教史(불교사) History and conditions of Buddhism 182.8 釋迦(석가), 佛弟子(불제자) 182.88 名僧傳(명승전) 182.9 佛蹟(불적)	역사적 시기, 지리적 구분 세분
183 經典(경전) Buddhist scriptures 183.1 阿含部(아함부) 183.19 本緣部(본연부): 因果經(인과경), 法句經(법구경), 183.2 般若部(반야부): 金剛經(금강경), 心經(심경), 仁王經(인왕경) 183.3 法華部(법화부): 觀音經(관음경), 法華經(법화경) 183.7 秘密部(비밀부) 183.79 偽經(위경) 183.8 律部(율부), 律疏(율소) 183.81 有部律(유부율) 183.9 論部(논부), 論疏(논소) 183.95 論集部(논집부): 起信論(기신론), 成實論(성실론)	불전(경, 율, 논) 불교 경전을 모아둔 항목이다. 중국의 '삼장'체계(경·율·론)를 반영

분류표	비고
184 法話(법화)·說敎集(설교집) Sermons, Preaching 184.9 佛敎說話(불교설화)	불교 강연, 설법, 신앙 간증 등에 관한 자료이다.
185 寺院(사원), 僧職(승직) Temples, Buddhist priests 185.1 寺院と國家(사원과 국가), 寺院行政(사원행정)·法令(법령) 185.7 僧職(승직), 僧位(승위), 僧服(승복)	사찰의 역사, 특정 사원 승려의 계율, 승려의 전기에 관한 자료를 분류한다
186 佛會(불회) Buddhist services and customs 186.1 行持作法(행지작법), 法式(법식), 勤行(근행) 186.6 懺悔(참회) 186.7 佛敎美術(불교미술)	의례, 풍습, 불교미술 등 주제별로 세분
187 布敎(포교), 傳道(전도) Buddhist missions 187.6 佛敎の社會事業(불교의 사회사업) 187.7 佛敎の敎育事業(불교의 교육사업)	
188 各宗(각종) Buddhist sects 188.1 律宗(율종) 188.2 論宗(논종) 186.3 華嚴宗(화엄종)	일본 불교의 종파를 중심으로 세분

분석하면, NDC10의 불교 분류체계는 ‘교리→역사/인물→경전→설교→사원/승려→의례→포교→종파’의 순으로 배치되었다. 이는 KDC와 비슷하게 불학과 불교학의 학문 체계와 종교 현상을 반영한 주제별 분류 방식을 따르고 있다.

183(경전)에 CLC5처럼 ‘삼장’체계를 세분하여 경·율·론을 반영하고 있으며, 188(종파)에 KDC6처럼 불교 종파를 두어 일본 불교의 종파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182(불교 사)에 시대별, 국가별의 불교 역사 및 불교 관련 인물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한·중·일 3국의 현행 문헌분류체계를 파악한 결과, KDC6와 NDC10은 주제 접근성이 강하고, CLC5는 경전 분류의 체계성이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4. KDC6, CLC5, NDC10의 불교분야 분류체계 비교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KDC6, CLC5, NDC10의 불교 관련 자료에 대한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KDC6와 NDC10은 ‘주제(교리, 인물, 경전, 신앙, 종파 등)’를 기준으로 하는 주제 중심의 분류 체계이다. 반면에 CLC5는 이론 중심의 ‘삼장(경·율·론)’이라는 전통불교 구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사용한 분류체계이다.

이 3개의 분류법에서 분류기호를 제외하고, 주제를 중심으로 유사한 내용을 세목화하여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이해를 위해 모두 세목까지는 분류기호도 포함하였다.

〈표 7〉 KDC6, CLC5, NDC10의 불교분야 세목 비교

KDC6	CLC5	NDC10
221 불교교리(Buddhist doctrine)	B948 佛教分析과 研究	181 教理(불교교리), 哲學(철학)
222 부처, 보살, 불제자(Budda) 222.3 제보살 222.4 불제자		
223 경전(불전, 불경, 대장경) (Buddhist scriptures) 223.1 남방계경전 223.11~13(경, 율, 논, 장외) 223.4 북방계경전 223.5 경부, 경소(경장) 223.51~59 아함부, 본연부,; 밀교부 223.6 고일경, 위경 223.7 율부 223.8 논부 223.9 외교부(外教部)	B941 大藏經(대장경, Tripitaka) B942 經及經疏(경/경소) 大乘(대승, 마하야나) 小乘(소승, 히나야나) 秘密部(밀교) B943 律及律疏(율/율소) 大乘律(대승율) 有部律(유부율) 四分律(사분율) 五分律(오분율) B944 論及論疏(논/논소) 大乘宗經論(대승종경론) 小乘論(소승론)	183 經典(경전) 阿含部(아함부) 本緣部(본연부) 般若部(반야부) 法華部(법화부) 秘密部(비밀부) 律部(율부), 律疏(율소) 論部(논부), 論疏(논소)
224 종교신앙, 신앙록, 신앙생활 (Diverse memories and religious life)		184 法話·說教(법화·설교)
225 포교, 교육, 교화활동 (Missionary activities)	B945 布教(포교), 儀注(의주)	187 布教·伝道(포교·전도)
226 사원론(Temple)	B947 佛教組織及寺院(불교조직/사원)	185 寺院(사원)·僧職(승직)
227 법회, 의식, 행사(의궤(儀軌)) (Buddhist ritual and ceremonies)		186 佛會(불회)
228 종파(Buddhist sects)	B946 佛教宗派(불교종파) 天台宗(천태종)(日蓮宗, 法華宗) 三論宗(삼론종)(法性宗(법성종)) 法相宗(법상종) 禪宗(선종)(佛心宗(불심종)) 密宗(밀종)(秘宗教(비종교), 喇嘛教(라마교), 티벳불교 律宗(율종)(南山律宗(남산율종)) 淨土宗(정토종)(蓮宗(연종))	188 仏教各宗(불교 각 종파) 律宗(율종) 論宗(논종) 華嚴宗(화엄종) 天台宗(천태종) 眞言宗(진언종)(密教(밀교)) 淨土宗(정토종) 禪宗(선종)(臨濟宗(임제종))
229 라마교(喇嘛教)		
	B949 佛教史(불교사) 傳記(전기)	182 佛教史(불교사) 釋迦(석가), 佛弟子(불제자) 佛蹟(불적)

〈표 7〉을 비교 분석하면, 먼저, 3개의 분류체계에서 분류기호의 배치나 순서는 서로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분류표에 나타난 주제 요목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주제가 같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분류체계에 제시된 주제 내용이나 배치 위치/순서의 기준은 해당 국가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정책, 사회 현상 등과 연관되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3개의 분류표에서 동일수준의 동위항목으로 요목(要目)에 해당하는 주제는 불교 교리, 경전(경·율·론 포함), 종파, 포교, 사원 등의 5개 요목이다. 그리고 KDC6와 NDC10의 2개 분류

표에서 동위항목으로 요목에 해당하는 주제는 신앙·수행 생활, 법회(의식) 등의 2개 요목이다. CLC5와 NDC10의 분류표에서 동위항목으로 요목에 해당하는 주제는 불교사(佛敎史)이다. 그리고 이 불교사 요목에 전기(인물)를 세분에 배정하고 있어 역사와 인물을 분리하지 않은 기준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셋째, 3개의 분류체계 모두 불교 경전을 다루고 있다. 단, CLC5는 경전을 4개의 요목(B941, B942, B943, B944)에 배정하고 있으나 KDC6은 223 세목에, NDC10은 183 세목에 배정하여 한 개의 요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불교의 많은 경전이 하위 요목인 세분에 분류된다는 것이다. 결국 다양한 경전의 분류가 세분되면서 분류기호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경전의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상위로의 동위항목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KDC6과 NDC10에 있는 신앙·수행 생활, 포교, 교화활동 등이 요목(要目)의 동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요목에 시대의 흐름이 반영된 주제로 볼 수 있는 ‘불교와 심리학’, ‘불교 상담’, ‘마음 챙김’, ‘디지털 불교’ 등의 융합 주제를 수용하는 항목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KDC6에는 불교사에 대한 요목이 없다. CLC5와 NDC10은 불교사를 하나의 요목으로 배정하였고, 하위 항목에 인물을 배정하여 역사와 인물이 하나의 요목에 편성되도록 하였다. 앞의 출판 동향에서 불교사 관련 자료는 115종으로 전체의 5%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나 지역의 역사까지 포함한다면 그 문헌량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KDC에서도 역사와 인물을 하나의 세목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KDC6에서는 불교종파와 라마교를 두 개의 세목에 배정하였다. CLC5와 NDC10처럼 라마교를 종파의 세목에 포함하여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

IV. KDC6 불교분야 분류체계 개선(안)

KDC6에서 종교(200)류 불교분야의 세목을 CLC5, NDC10의 세목과 비교 분석하여 도출한 내용과 현대의 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KDC의 불교 주제 분류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기본 원칙

이 연구는 KDC6, CLC5, NDC10의 불교분야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하고 현행 KDC의 한계와 개선점 도출을 바탕으로 4가지 기본 원칙을 설정하여 개선(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첫째, 논리적 계층 구조 확립이다. 학문 연구의 일반적 순서로 ‘이론(교리) → 경전 → 역사 → 조직(종파) → 실천(수행) → 문화/산물 → 사회적 적용’의 흐름을 따르도록 배열한다.

둘째, 학술적 체계성 강화이다. KDC6의 강점인 주제 접근성을 유지하되, CLC5와 NDC10의 장점을 차용하여 '경전'항목에 삼장(三藏) 체계를 도입하여 학술 문헌의 정밀한 분류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 현대적 주제 수용이다. 명상, 마음챙김, 불교 심리 등 현대 사회의 수요가 높은 주제를 이용자가 식별하기 쉬운 위치로 배치하고 명확한 항목을 신설한다.

넷째, 문헌적 근거에 의한 적절한 배치 및 항목 간 적정성 확보이다. '신앙'과 '의례', '사원'과 '예술' 등 현행 분류에서 중복되거나 분산된 항목을 논리적으로 통합, 재배치하여 분류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2. 불교분야 분류체계 개선(안)

위의 기본 원칙에 따라 현행의 교리, 경전, 신앙, 종파 등의 구성을 유지하면서 한계점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시하는 분류기준은 '교리/철학→경전→역사/인물→종파/종단→수행/신앙→문화/예술→사회'라는 주제 흐름으로 편성하고자 한다. KDC6 불교분야의 분류체계 개선(안)은 <표 8>과 같다.

<표 8> KDC6 불교분야 분류체계 개선(안)

분류체계	분류항목	주요 내용/개선 사항
220	불교	
221	불교 철학 및 교리	(현행 221 유지)
.1 ~ .7	불교 철학(인식론, 존재론 등), 불교 윤리, 연기(緣起)·공(空)·유식(唯識)	불교의 근본 사상, 윤리, 우주론
222	불교 경전(불전)	
.1 ~ .4	경장(Sutra)(조기경전, 반야, 법화, 화엄, 정토 등) 율장(Vinaya)(계율, 승가 규율) 논장(Abhidharma)(교리 해석서, 논서) 대장경(전집류)	CLC5/NDC10의 강점 수용 현행 223을 '삼장' 체계로 세분화
.5 ~ .8	선어록·조사어록, 경전연구 및 해설(총론)	
223	불교사 및 인물	
.1 ~ .7	불교사 (총론) 한국 불교사, 인도 및 초기 불교사, 동아시아 불교사(중국, 일본), 티베트 불교사, 동남아시아 불교사, 서양 불교사	현행 222(인물)과 역사를 통합하여 시대/지역별로 전개
.8 ~ .9	인물(부처, 보살, 조사, 승려)	
224	종단 및 종파	
.1	한국 불교 종단(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등)	현행 228(종파)를 확장
.2	초기불교 및 소승불교(테라와다)	
.3 ~ .8	대승불교(총론), 중관·유식(학파) 천태·화엄·법상(교종), 정토 선종(조계종, 임제종, 조동종 등) 밀교(진언종, 티베트 불교)	지역별/사상별로 재구성 현행 229(라마교) 통합

분류체계	분류항목	주요 내용/개선 사항
225	수행 및 신앙생활	
.1 ~ .3	신앙생활	현행 224(신앙)와 227(의례) 일부를 통합
.4 ~ .5	명상, 참선(위빠사나, 마음 챙김 등) 불교와 심리(불교 상담, 심리치료)	현대적 수요 반영
.6 ~ .8	의례 및 법회	
226	불교 문화 및 예술	
.1 ~ .2	사찰 건축(가람 배치, 탑)	분산된 문화/예술 주제를 통합
.3 ~ .7	불상·조각, 불화·탱화, 불교음악(법패), 문학, 불교 공예(법구 등)	현행 226(사원론)을 포함
227	불교와 사회 (포교)	
.1 ~ .7	포교·선교, 불교 교육, 불교와 과학, 불교와 사회(복지, 윤리, 환경, 정치) 불교와 타종교	현행 225(포교)를 '사회'개념으로 확장
228 ~ 229	(공위)	

개정(안) 이유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선(안)의 기본 원칙에 따라 논리적 계층 구조를 확립한 배열을 하였다. '이론(교리) → 경전 → 역사 → 조직(종파) → 실천(수행) → 문화/산물 → 사회적 적용'의 흐름을 따르도록 하였고, 이론에 해당하는 불교와 불교학의 근본 사상, 철학, 윤리, 우주관 등의 내용과 불교 근본 교리를 담은 내용을 221(불교 교리 및 철학)세목에 배치하였다.

둘째, 불교학 구성의 논리 강화로 삼장(三藏)을 포함하는 경전(불전)을 222(경전)에 배치하고 세분하여 경(經)·율(律)·론(論)을 체계로 분류하였다. 이는 CLC5와 NDC10의 상세 전개 방식을 차용하여 경(Sutra), 율(Vinaya), 론(Abhidharma)으로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학술 문헌과 원전 자료의 분류 정밀성을 높이자는 의도이다.

셋째, 논리적 계층 순서에 따라 223에 불교사와 인물을 배치하였다.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는 2,500여년의 시간과 아시아 전역에 퍼진 공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시·공간에서 불교 관련 인물도 수없이 많다. 이들이 작성한 자료 또한 많은 것이다. 이처럼 지리와 역사 그리고 전기(傳記)의 순차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 틀림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선후야 어떻게 되었던 전기와 역사는 인접하게 배열되어야 함이 마땅하다(이창수, 2016, 16). 그래서 KDC6의 222(부처, 보살 등)세목과 220.9(불교사)세분을 통합하고, CLC5의 B949(불교사)를 반영하여 개선(안)에 223(불교사 및 인물)을 배정하였다.

넷째, 불교의 발전 과정과 특성에서 보았듯이, 여러 문화권으로 전파되면서 불교의 종파도 분리되어 생겼다. 이러한 종파(宗派) 항목의 체계적인 배치가 필요하다. KDC6의 228(종파)의 단순 나열과 229(라마교)의 논리적 이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불교 종파의 분류기준은 '초기불교 → 교종 → 정토 → 선종 → 밀교' 등 사상적, 역사적 흐름에 따라 정하고 이에 종파의 순서를 재구성한다. '라마교(티베트 불교)'를 밀교로 통합하여 분류체계의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다섯째, 불교의 구성인 삼학(三學)의 수행과 실천에 해당하고, 현대의 사회 현상을 반영한 종교

(불교)적 사례, 의례나 의식 등이 수용된 항목을 배치하는 것이다. 이용자 요구가 가장 높은 ‘수행’ 주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KDC6의 224(신앙, 신앙생활 등)와 227(법회, 의식 등)을 통합하여 현대적 수요를 반영한 항세목으로 225(수행 및 신앙생활)를 배정하였다. 특히 ‘명상’과 ‘불교와 심리’를 독립 세분하여 신설 배치함으로 접근성을 극대화하였다.

여섯째, KDC6의 226.1(사찰)을 문헌적 근거에 의해 개선(안)의 226(불교 문화 및 예술)에 통합하였다. 그리고 분산된 불교 문화/예술 주제를 통합하여 226에 배치하여, 불교와 관련된 문화, 예술의 내용과 주제를 세분하였다. 그리고 227에 불교와 사회를 배정하여, 포교, 교육, 불교와 타 종교, 불교와 과학 등을 세분하여 현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228과 229를 공위하여 향후 유연한 분류 전개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3. 종교공통구분 개선(안)

KDC의 종교공통구분표는 기본적으로 각 종교에 내포된 공통적 특성을 추출하여 각 종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이한 주제나 의식을 8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이를 각 종교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 조기표이다(오동근 외, 2002, 105). 조기성은 “동일 개념이나 동일주제, 동일형식에 대해 동일기호를 부여함으로써 기억을 도와주는 것”(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2013, 4)을 말한다. 즉 분류기호의 조직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KDC6에서 활용하는 종교공통구분은 세계의 주요 종교를 220-280에 배정하고 세목의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분류표 210(비교종교)의 211~218의 세목으로 전개된 구분을 종교공통구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활용하는 종교공통구분의 개요와 이 연구에서 제시한 <표 8>의 개선(안)의 분류표를 참조하여 종교공통구분의 개선(안)을 제시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종교공통구분의 개요 개선(안)

KDC6			개선(안)		
분류표 211~218	종교공통구분		종교공통구분	불교(220) 개선(안)	
211 교리	-1 교리, 교의	-1	교리, 교의	221 불교철학, 교리	
212 종교창시자(교주) 및 제자	-2 종교창시자(교주) 및 제자	-2	경전, 성전	222 불교 경전	
213 경전, 성전	-3 경전, 성전	-3	종교사 및 인물	223 불교사 및 인물	
214 종교신앙, 신앙록, 신앙생활, 수도생활	-4 종교신앙, 신앙록, 신앙생활, 수도생활	-4	종(교)단 및 종파	224 종단 및 종파	
215 선교, 포교, 전도, 교육활동	-5 선교, 포교, 전도, 교화(교육)활동	-5	수행 · 신앙생활, 의례(의식)	225 수행 및 · 신앙생활, 의례(의식)	
216 종단, 교단(교당론)	-6 종단, 교단	-6	문화 및 예술	226 불교문화 및 예술	
217 예배형식, 의식, 의례	-7 예배형식, 의식, 의례	-7	포교, 선교 전도, 교화(교육)활동	227 불교와 사회(포교)	
218 종파, 교파	-8 종파, 교파				

종교공통구분표는 각 종교의 세 번째 패킷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오동근 외, 2002, 106). 불교(220), 기독교(230), 도교(240) 등은 이미 본표에 종교공통구분의 항목들이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종교공통구분의 적용은 미미하다. 이 외의 종교에 이 종교공통구분표를 부가 지시 사항에 따라 본표의 기본기호에 직접 적용하여 추가 분류하면 된다.

단지, 이 연구는 동양 3국의 현행 문헌분류체계에서 불교 주제의 분류표를 비교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불교 관련 도서의 출판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비교분석 내용을 반영하여 불교분야에 대한 문헌분류체계를 개선(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KDC6를 개정할 때, 불교 주제의 개선(안)이 반영되면 전체적으로 KDC6의 종교(200)에 대한 분류체계의 개선이 필요하고 동시에 보조표인 종교공통구분에 대한 개선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이 연구는 KDC6에서 불교의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행의 불교(220) 강목이 현대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불교 관련 자료를 문헌적 근거에 따라 적정 수준의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분류기호를 배정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 분류표를 제안하는데 있다. 개선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는 문헌적 근거에 의해 문헌량의 다과에 따라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실용적 논리와 최근 불교 문헌은 전통적인 경전 연구뿐만 아니라, 명상, 심리치료, 사회참여 등 실용적이고 융합적 주제로 확장되고 있으나, 현행 KDC6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2020년~2024년) 동안의 불교분야의 출판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LOD를 통해 5년간의 KDC6 불교(220) 강목과 세목(221~228)에 배정된 통계 자료로 분류체계 배정 비율을 파악하였고, 이론적 배경으로 문헌적 근거를 적용하여 기준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 일본의 문헌분류체계인 KDC6, CLC5, NDC10 등에서 불교분야에 대한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개의 분류체계에서 분류기호의 배치나 순서는 모두 다르다. 분류체계에 나타난 주제 요목에 대해서는 동일수준의 동위항목으로 요목(要目)에 해당하는 주제는 불교 교리, 경전(경·률·론 포함), 종파, 포교, 사원 등의 5개 요목이다. 그리고 KDC6와 NDC10의 2개 분류체계에서 동위항목으로 요목에 해당하는 주제는 신앙·수행 생활, 법회(의식) 등의 2개 요목이다. CLC5와 NDC10의 분류표에서 동위항목으로 요목에 해당하는 주제는 불교사(佛敎史)이다. 그리고 이 불교사 요목에 전기(인물)를 세분에 배정하고 있어 역사와 인물을 분리하지 않은 기준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3개의 분류체계 모두 불교 경전을 다루고 있다. 단, CLC5는 경전을 4개의 세목(B941, B942, B943, B944)에 배정하고 있으나 KDC6은 223 세목에, NDC10은 183 세목에 배정하여 한 개의 요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불교의 많은 경전이 하위 요목에 분류되어 세분된다는 것이다.

셋째, KDC6에는 불교사에 대한 세목이 없다. CLC5와 NDC10은 불교사를 하나의 세목으로 배정하였고, 하위 항목에 인물을 배정하여 역사와 인물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불교사 세목 기호에서 세분되도록 하였다. 또 KDC6에서는 불교 종파와 라마교를 두 개의 세목에 배정하였다. CLC5와 NDC10처럼 라마교를 종파의 세목에 포함하여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KDC6의 주제 중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학술적 체계성과 현대적 실용성을 강화하는 개선 분류체계(안)를 개발하였다. 개선(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경전→역사/인물→종파/조직→실천(수행)→문화/예술→사회’라는 명확한 논리적 흐름을 확립한 것이다. 불교학 구성의 논리 강화로 삼장(三藏)을 포함하는 경전(불전)을 222(경전)에 배치하고 세분하여 경(經)·율(律)·론(論)을 체계로 분류하였다. 이는 학술 문헌과 원전 자료의 분류 정밀성을 높이는 의도이다. 그리고 논리적 계층 순서에 따라 223에 불교사와 인물을 배치하였다. 지리와 역사 그리고 전기(傳記)의 순차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접하게 배열되어야 한다.

둘째, 종파(宗派) 항목의 체계적인 배치가 필요하다. KDC6의 228(종파)의 단순 나열과 229(라마교)의 논리적 이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불교 종파의 분류기준은 ‘초기불교→교종→정토→선종→밀교’ 등 사상적, 역사적 흐름에 따라 정하고 이에 종파의 순서를 재구성한다. 라마교(티베트 불교)를 밀교로 통합하여 분류체계의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이용자 요구가 가장 높은 ‘수행’ 주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대적 수요를 반영한 항목으로 225(수행 및 신앙생활)를 배정하였다. 특히 ‘명상’과 ‘불교와 심리’를 독립 세분으로 신설 배치하여 접근성을 극대화한다.

넷째, 문헌적 근거에 의해 분산된 불교 문화/예술 주제를 통합하여 226에 배치하여, 불교와 관련된 문화, 예술의 내용과 주제를 세분하였다. 그리고 227에 불교와 사회를 배정하여, 포교, 교육, 불교와 타 종교, 불교와 과학 등을 세분하여 현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불교분야의 분류체계의 개선(안)은 KDC 종교(200)류에 대한 분류체계에 영향을 줄 것이다. 문헌분류체계에 학술적 체계성과 현대의 실용성이 반영되고 명확한 논리적 흐름이 이해되면 다른 종교 분야의 분류체계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개선(안)은 불교 자료의 분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주제가 적절하게 배정되어 사서의 분류 업무 효율성과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영섭 (2016a). 불교입문: 불교로 들어가는 문. 서울: 도서출판 씨아이알.
- 고영섭 (2016b). 불학과 불교학: 인문학으로서 불교학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씨아이알.
-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 LOD (2025. 11. 12.). <https://lod.nl.go.kr/home>
- 김경집 (2022). 한국불교통사. 서울: 도서출판 운주사.
- 김성원 (2021). 문헌적 근거에 기반한 한국십진분류법 활용현황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2), 25-50.
- 김송이, 정연경 (2014). KDC 6판 건축학 분야의 분류체계 개선 방안. 정보관리학회지, 31(3), 7-27.
- 김정현 (2014).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관광학 분야의 분류체계 수정 전개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1), 103-123.
- 김정현 (2017).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사회복지학 분야의 분류체계 수정 전개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3), 63-81.
- 남태우 (2015). 지식구조론, 제1권: 기초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박수현, 이명규 (2016). 한국십진분류법 기록관리학 분야 분류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3), 25-50.
- 오동근, 배영환, 여지숙 (2002). KDC의 이해. 대구: 태일사.
- 오영옥, 이미화 (2019). 어린이도서 분류를 위한 KDC 6판 개선 및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1), 105-124.
- 온혜성 (2014). 한국십진분류법의 문헌정보학 분야 분류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창수 (2016). KDC, CLC, NDC의 한중일 관련분야 비교 분석.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9(2), 1-20
- 이희진, 김정현 (2013).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체육학 분야의 분류체계 개선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4), 301-317.
- 전창호 (2015). 문헌적 근거에 기초한 한국십진분류법 전개 개선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 정옥경 (2014). 한국십진분류법의 디지털 관련 항목명 확장 전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2), 177-199.
- 조혜전, 정연경 (2018). 중학생의 소설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소설 분야 분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5(1), 61-82.
- 한경신 (2014). 한국십진분류법 국방군사학(390)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207-229.
- 한국도서관협회 (2010).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개정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편 (2013). 한국십진분류법. 제1권: 본표 (제6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國家圖書館 中国图书馆分类法编辑委员会 編 (2010). 中国图书馆分类法 (第5版). 北京: 國家圖書館出版社.
- 日本図書館協会 分類委員会 改訂 (2014). 日本十進分類法. 1: 本表・補助表編 (新訂10版). 東京: 日本図書館協会.
- Kumar, K. (1981). Theory of Classification (2nd revised ed.). New Delhi: Vikas Publishing House.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Hye-Chon & Chung, Yeon Kyoung (2018). A study on improvement for classification of fiction to enhance to accessibility for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5(1), 61-82.
- Chung, Ok-Kyung (2014). A study on expansion of headings for digital trends of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2), 177-199.
- Hahn, Kyung-Shin (2014). A study on the military science schedules of KDC.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4), 207-229.
- Japanese Library Association Revised Classification Committee (2014). Nippon Decimal Classification. Vol. 1 (10th Edition). Tokyo: Japanese Library Association.
- Jeon, Chang-Ho (2015). A Study on Improvements of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based on Literary Warrant. Doctoral dissertation, Dong Eui University.
- Kim, Jeong-Hyen (2014). The improvements of the tourism field in the 6th edition of KDC.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1), 103-123.
- Kim, Jeong-Hyen (2017). The improvements of the social welfare field in the 6th edition of KDC.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3), 63-81.
- Kim, Kyoung-Jip (2022). A Comprehensive History of Korea Buddhism. Seoul: Unjubooks.
- Kim, Song-ie & Chung, Yeon Kyoung (2014). A study on improvements of construction and architecture fields in the 6th edition of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3), 7-27.

- Kim, Sungwon (2021). A research on utilization of KDC based on literary warra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2), 25-50.
- Ko, Young-seop (2016a). *Introduction to Buddhism*. Seoul: CIR Publishing.
- Ko, Young-seop (2016b). *Buddhist and Buddhist Studies: Stories of Buddhist Studies as Humanities*. Seoul: CIR Publishing.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0). *The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nd Revision).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orean Library Association Committee of Classification (2013).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Vol. 1 (6th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Lee, Changsoo (2016). Comparative analysis of KDC, CLC and NDC on topics related to Korea, China and Japan. *Discourse and Policy in Social Science*, 9(2), 1-20.
- Lee, Hee-Jin & Kim, Jeong-Hyen (2013). The improvements of the physical education field in the 6th edition of KDC.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4), 301-317.
- National Library Editorial Committee on the Chinese Library Classification (2010). *Chinese Library Classification* (5th ed). Beijing: National Library Publishing Company.
- National Library of Korea National bibliography Linked Open Data (2025, November 12). <https://lod.nl.go.kr/home>
- Nam, Tae-Woo (2015). *The structure and organization of knowledge*. Vol. 1.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Oh, Dong-Geun, Bae, Yeong-Hwal, & Yeo, Ji-Suk (2002). *Understanding KDC*. Daegu: Taeilsa.
- Oh, Young-Ok & Lee, Mi-Hwa (2019). A study on the improvement and application of KDC 6th ed. for classifying the children's book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1), 105-124.
- On, Hye-Sung (2014). *A Study on Revising for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6th 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Park, Su-Hyun & Lee, Myoung-Gyu (2016).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on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tudies in KDC.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3), 25-50.